



정읍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가족여행 추진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8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함께 한 특별한 가족 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여행은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라서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가족 여행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 자연을 만끽하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숲길을 걸으며 봄기운을 느끼고, 식물 심기 체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돌봄에 집중하던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여행은 시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센터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비전대, 나이·경력 초월한 평생학습 환경 구축

87세 김금오씨, 사회복지경영과 입학... 성인학습자 중심 학사체계 지속 강화

전주비전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과 새내기인 김금오(87) 씨가 늦은 나이에 배움의 꿈을 이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금오 씨는 전주고 육지원청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8년간 묵묵히 노력한 끝에 정읍 남일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도자기와 봉사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 진로를 고민하던 그는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사회복지 분야를 선택, 전주비전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과에 입학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김 씨는 "가족의 지지 덕분에 대학진학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봉사동아리에 가입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학우들과 함께 캠퍼스타이프를 즐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나이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용기를 내어 대학의 문을 두드려보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다양한 연령과 삶의 배경을 지닌 이들이 다시 배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중심의 학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사회복지, 스포츠건강 등 실무중심 학과에 성인 대상 맞춤형 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연한 교육과정과 야간·주말수업 등을 통해 평생학습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우병훈 총장은 "김금오 학생은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귀감이 되는 사례"라며 "전주비전대학교는 성인 학습자들이 삶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나이, 성별,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배움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사제도와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경영과 양윤주 학과장도 "사회복지 분야는 나이에 관계없이 학습과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라며 "김금오 학생처럼 도전하는 이들이 학문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제·고창 공무원직노조, 고향사랑기부제 상회기부 동참

김제시는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최선례)이 지난 31일 김제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안용주)과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상호 교차기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김제시와 고창군 각 조합원 60명이 자발적으로 두 지역의 상생발전과 기부문화 조성을 응원했다.

최선례 고창군 공무원직노조 지부장은 "이번 상호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창과 김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김제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한도가 개인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경찰서, 화재현장 초동조치 대응력 강화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최근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31일 순찰차에 소화기를 추가배치 하는 등 화재현장에 대한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력 강화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소성면, 칠보면 등지에 화재가 발생,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며 경찰관들의 화재에 대한 초동조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며 이루어 졌다.

특히 정읍경찰서에서는 순찰차에 1개씩 구비되어있던 소화기를 2개 추가 배치하고 관내 화재 취약시설의 예방순찰 강화, 농작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활동과 차량 운행 중 담배꽂초 투기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상훈 정읍서장은 "앞으로도 정읍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더 나은 경찰활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4회 순창군 체육회장배 경천 걷기대회' 성료

경천 ~ 양지천변 4.5km 구간으로 약 1시간 코스

순창군 경천면에서 지난 29일 '제4회 순창군 체육회장배 경천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창군체육회(회장 손충호)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충석 군의장과 군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군민,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봄날의 정취를 만끽했다.

벚꽃 축제장 주무대에서 시작된 걷기 행사는 경천과 양지천변을 따라 이어지는 4.5km 구간에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봄의 향기를 가득 느꼈다.

걷기는 벚꽃 축제장 무대를 시작으로 경천면, 장수교, 양지교를 거쳐 순창구청 앞, 교화교를 지나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약 1시간 코스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최영일 군수가 최우선 공약으로 삼은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을 직접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걷기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경천과 양지천의 모습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발생한 산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나라 전체가 위기의 상황인 만큼 산불 조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걷기 대회를 통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건강과 행복을 가득 채워 가시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손충호 체육회회장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걷기 대회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성수면, 김제 청하면 주민들 선진지 견학 진행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운영관리의 선진지로 꼽히는 임실군 성수면에 김제시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추진 위원 및 김제시 직원, 청하면 주민 50여 명이 지난 28일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거점지 운영이 우수한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김제시 청하면에 적합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선진지 방문의 일환이다.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 서비스 거점 공간을 제공한다.

박강철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선진지 견학을 오시는 분들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성심성의껏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김제 진봉면 적십자회, 봄맞이 심포함 환경정화 활동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봄을 맞아 적십자회인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포함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소 먼민들뿐만 아니라 바다낚시와 캠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심포함에서 진행됐다. 관광 명소인 만큼 많은 쓰레기가 투기 및 방치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심포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진 진봉면 적십자회장은 "바쁜 시기임에도 활동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에 감사드리며, 심포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진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시 용지면, 자봉센터와 이동세탁 빨래방 운영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와 지난 31일 용지면 수하마을 경로당에서 국민가수 현숙씨가 기증한 이동세탁 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봄맞이 이동세탁 빨래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동세탁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세대, 취약계층 등 크고 무거운 이불 빨래를 혼자 하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맞춤형복지팀원들은 이불을 직접 수거해 세탁 및 건조를 진행했다. 또, 완성된 세탁물을 직접 가정에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도 확인하는 등 봉사활동에 모두가 구슬땀을 흘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